

울진 북면성당(공소)

Buk-myon Catholic Church

허인원 / 시·종 건축 + 김정신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Designed by Hur Ihn-Won & Kim Jung-Shi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231-11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2,997.00㎡
건축면적	286.47㎡	연면적	464.90㎡
건폐율	9.56%	용적률	15.5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지붕)		
규모	지상3층		
내장재	바닥-회강석 물갈기		
	벽-토석벽돌 치장쌓기		
	천장-텍틴패널		
외장재	벽-노출콘크리트		
	지붕-동판 가락잇기		
스테인드글라스	조광호 신부		
감실	조광호 신부		
십자고상	이정구		
구조담당	김영환(공연건축사사무소)		
설비담당	최인창(충청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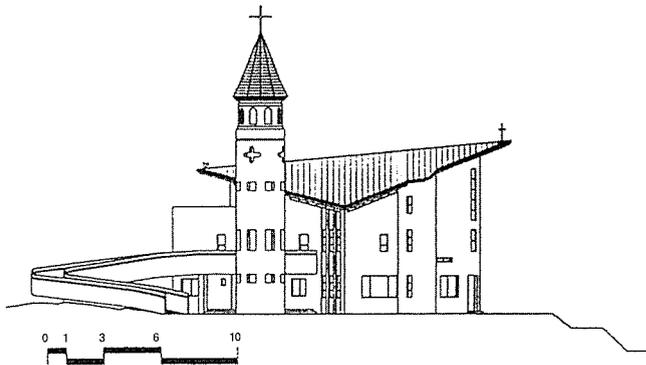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대지는 동해안 7번 국도의 서측에 면한 낮은 언덕위에 위치한다. 도로에서 대지는 약 11m의 높이차를 갖고 있고, 도로가 120도로 꺾이는 결절점에 있기 때문에 우월한 조망 확보와 랜드마크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바다를 향해 비상하는 듯한 마름모꼴의 형태는 성당건축으로서의 낮설지만 교회건축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바탕을 둔 현대 성당건축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정방형 평면의 대각선 축에 부채꼴 형태의 회중석을 배열하고 부공간(제의실, 유아실, 성가대, 감실)을 부가해 되 자체 매스를 마름모꼴의 경사지붕으로 중심을 잡았다. 여기에 등대 이미지의 종탑을 건물과 약간 이격시켜 테크로 연결하고 경사참로를 부가함으로써 전체 형태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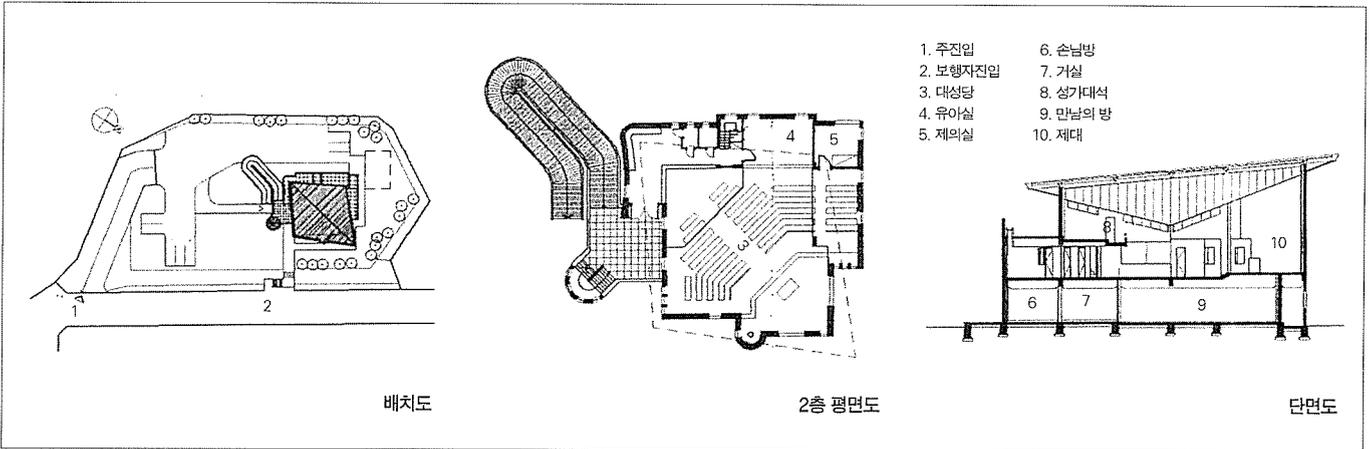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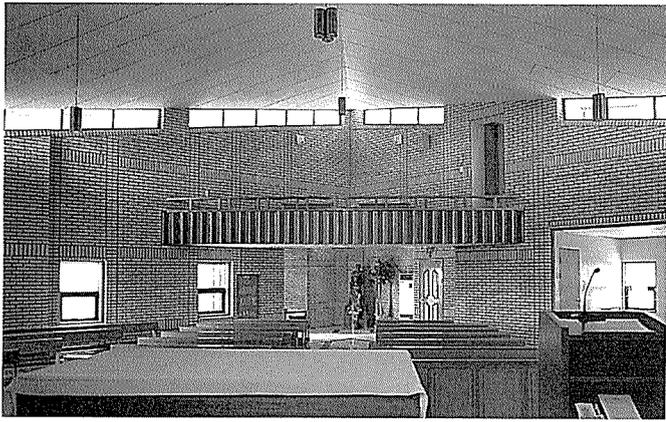
성당의 축(사선)은 북쪽 국도의 방향과 일치하고, 평면의 사각 변은 계획도로와 대지경계선에 대응케 함으로써 지면레벨에서의 안정감과 대지 활용도를 높였고 동시에 하늘에서의 역동적인 지붕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남측 도로에서의 접근시 건물은 일체감 있게 보이고, 대지 입구쪽 단덕은 처음에 대지를 보여 주다가 점차적으로 지붕의 일부와 십자가만 보이고 본체를 가렸다가 대지에 다 오르면 전체를 드러나게 하는 접근의 재미있는 시퀀스를 의도하였다.

쓰인 재료는 노출콘크리트와 토석벽돌이며 어떠한 마감처리도 없는 소재 그대로이다. 거칠고 힘있는 콘크리트와 벽돌은 중세건축에 접근하는 강한 표현성을 갖고 있다.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 어우러져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힘찬 거푸집 패턴은 물과 빛과 시간을 말해준다. 여러 소재들이 모여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이러한 구조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닌가!

현대인들이 상실한 표면질감에 대한 감각적인 의식과 잃어버린 감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구에게나 열린, 특히 여행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활의 신비에 동참케 하고 그들의 내부에서 영혼의 여과와 동화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성당이 되기를 바란다.



사선측 입면도



- 1. 주진입
- 2. 보행자진입
- 3. 대성당
- 4. 유아실
- 5. 제의실
- 6. 손님방
- 7. 거실
- 8. 성가대석
- 9. 만남의 방
- 10. 제대

배치도

2층 평면도

단면도

